

CROSSROAD

일본 동경에서 유정훈/김신혜 선교사 기도편지

봄방학 어린이 캠프

3월 봄방학 기간 중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어린이 캠프를 가졌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며 아직 교회에 연결되지 않은 일본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인 친구인 치카와 켄 그리고 유이가 교회에 몇번 와 본 적은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와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요리 김밥 만들기

교회에서는 매주 한국요리 교실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일본인들도 한류를 통해 전해진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음식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기쁘게 교회에 와주고 음식을 만들며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날은 우에하라상 부부와 타카쿠사키상이 와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도 초밥으로 만드는 김밥이 있지만 한국 김밥도 너무 좋아합니다.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듣고 갑니다. 한국요리교실을 통해 연결된 일본인들이 복음에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전도

와세다 대학에서는 정기적으로 개인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전 쉬는 시간중에 벤치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진지하게 들어주는 학생들을 보면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복음을 위해 준비한 영혼들이 있음을 늘 느끼게 해 주십니다. 미약한 사역이지만 그동안 전하였던 복음이 작은 불씨가 되어 일본 복음화의 열매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지내시는 일본인 키타다 할머니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키타다 할머니는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지만 건강하시고 말씀도 아주 재미있게 잘 하십니다. 교회에서 이야기 나누 시는걸 너무 좋아하시고 오며가며 자주 들려 주십니다. 가끔 씩 맛있는 과자도 가져다 주십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으셨지만 꼭 마음도 열려 예수님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가족소식

늘 저희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준이는 중학생이 되고 기도 덩치도 많이 컸습니다. 교회 설거지 당번에 들어가 고등학생 형을 도와 설거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엌이 작아, 좀더 큰 부엌이 있는 새로운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인이는 5학년, 수아는 2학년에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한국어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 토요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지인이는 조금 씩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수아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본선교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생명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본 동경에서 유정훈/김신혜선교사

